

# 무기력 여자 축구... 무득점 탈락 위기

모로코와 2차전 0-1 패배  
두 경기서 2패 H조 최하위  
8월 3일 독일과 최종전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패를 당해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FIFA 랭킹 17위)은 30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FIFA 랭킹 72위)와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1로 졌다.

25일 콜롬비아(FIFA 랭킹 25위)와 1차전에서 0-2로 패한 우리나라는 두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패를 기록, 조 최하위가 됐다.

반드시 이겨야 16강 가능성을 불붙일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날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손화연(현대제철)과 박은선(서울시청)이 투톱을 이뤘고, 미드필드에 지소연(수원FC), 조소현(토트넘), 이금민(브라이턴)이 출격했다. 또 장승기(현대제철)와 추효주(수원FC)가 전·후방을 오가는 윙백을 맡았고, 수비에는 김혜리, 홍혜지(이상 현대제철), 심서연(수원FC)이 늘어섰다.

골키퍼는 김정미(현대제철)가 선발로 나왔다. 대회 개막 전에 1승 상대로 점찍었던 모로코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반 6분 만에 먼저 실점하며 고전했다.

모로코의 하나네 아이트 엘 하지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이브티삼 즈라이디가 머리로 받아 넣어 우리 골문을 뚫었다. 이렇듯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여자 월드컵 본선에 오른 모로코는 역사적인 대회 1호 골과 첫 승리를 모두 한국을 상대로 따냈다.

전반 15분까지는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나라는 전반 17분 이금민의 슈팅으로



30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H조 2차전 한국과 모로코 경기의 0-1, 한국의 패배로 끝났다. 경기 종료 뒤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아쉬움을 달라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박은선의 헤딩 패스를 조소현이 받아 이금민에게 내준 공을 이금민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 몸에 맞고 나왔다.

또 전반 20분에는 추효주와 손화연이 연달아 슈팅을 시도하는 등 모로코 골문을 계속 위협했다.

전반 26분에는 이날 한국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지소연이 왼쪽에서 빠르게 올린 크로스를 박은선이 몸을 날리며 헤딩 슈트로 연결한 것이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시작과 함께 손화연, 추효주를 빼고 최유리(현대제철), 문미라(수원FC)를 넣은 한국은 4-3-3 대형으로 바꾸며 변화를 꾀했다.

특히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계속 모로코 진영에서 경기를 펼쳤으나 기다리던

동점 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후반 42분 교체 선수로 들어간 케이시 유진 페어(PDA)의 왼발 슈팅이 오른쪽으로 빗나갔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문미라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선수에 밀려 넘어졌으나 그 전에 페어의 반칙이 먼저 지적돼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공 점유율 49% 대 31%(경합 20%)로 앞섰고, 슈팅 수에서도 14-9로 더

많았다.

다만 유효 슈팅은 0-2로 모로코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이날 패배로 여자 월드컵 본선에서 2015년 대회 프랑스와 16강전부터 최근 6연패를 당했다. 한국의 여자 월드컵 본선 성적은 이날 경기까지 1승 1무 10패가 됐다.

한국은 8월 3일 오후 7시 호주 브리즈번에서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이의리의 '매서움'... 윤영철의 '정교함'



이의리



윤영철



매서움과 정교함으로 KIA 타이거즈가 기본 좋은 연승을 만들었다.

KIA는 7월 마지막 주말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홈 3연전을 벌였다. 1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던 상대와의 만남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히 마운드에 눈길이 갔다.

KIA 마운드의 현재이자 미래, 이의리와 윤영철이 28일과 29일 나란히 후반기 첫 등판을 하게 된 만큼 두 선수의 성적표가 또 다른 관심사였다.

입단 첫해부터 선발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3년 차 이의리와 역시 프로 첫해 선발 자리를 꿰차고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는 고졸 루키 윤영철. 결과는 '매우 만족'이었다.

일단 팀이 6-5에 이어 4-1 승리를 거두면서 '신예 좌완 듀오'로 후반기 첫 연승을 찍었다. 두 선수도 모두 승리를 챙겼다.

박세웅과 상대했던 이의리는 6이닝 3실점 8탈삼진의 기록으로 시즌 8승째를 수확했고, 이인복을 만난 윤영철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지키면서

이의리, 6이닝 3실점 시즌 8승...윤영철, 6이닝 무실점 시즌 6승  
KIA 마운드의 현재이자 미래 '신예 좌완 듀오' 후반기 첫 연승

시즌 6승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매서움'과 '정교함'이라는 다른 장점의 좌완 미래가 연달아 호투를 선보이면서 KIA 팬들에게는 더 특별한 연승이 됐다.

이의리는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강력한 직구를 가지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도 최고 150km가 찍혔고, 직구 평균 구속은 145km를 기록했다. 매섭게 포수 미트를 파고드는 직구로 시원시원한 승부를 한 이의리. 이날 98개의 공 중 62개가 직구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변화구로 승부를 하면서 승리를 챙겼다.

이날 3개의 볼넷을 허용했지만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면서 8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이의리는 경기가 끝난 뒤 "후반기부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맞아도 빠른 카운트에서 맞자'라는 생각을 했다. 조금 맞더라도 계속 들어가면서 투구수를 줄여보자는 생각이었다. 그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며 "준을 크게

벗어난 게 많지 않아 좋은 투구였던 것 같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빠르고 자신감있게 승부하면서 제구 부담을 줄였지만 '육심'은 아쉬움이 됐다.

이의리는 "5이닝은 시원시원하게 던졌는데 6회 올라가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 6이닝 신경 쓰니까 잘 던지고 싶은 마음에 육심이 생겼다"며 "(무사 1루에서 병살타로) 전준우 선배를 잡았을 때 한 이닝 더 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흔들렸다. 그래도 마지막에 집중력 있게 위기를 벗어났다"고 돌아봤다.

스피드와 구위로 승부를 한 이의리, 윤영철은 정교함과 신인답지 않은 여유로 승리를 낚았다.

30일 윤영철의 직구 최고 구속은 139km, 평균 135km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영철은 존 구석구석 공을 꽂아넣었고, 슬라이더(25개·123-131km)와 체인저(17개·122-127km)으로 타이밍 싸움을 하면서 특별한 위기 없이 6회를 채웠다.

여기에 롯데전 기분 좋은 기억도 자신감이 됐다. 윤영철은 5월 3일 홈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피칭을 했다. 화끈한 타선 지원으로 경기가 10-2승리로 끝났고, 윤영철은 4번째 등판에서 프로 첫승을 신고했다.

윤영철은 "지난 번에 만났을 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자신 있게 던졌다. (후반기 첫 등판이었지만) 똑같은 경기라고 생각하고 던지려 했다"며 "선발이기 때문에 5이닝 이상만 던지자는 생각으로 등판을 하고 있다. 내가 많은 이닝을 던져야 팀이 편하기까 점수 주더라도 최대한 이닝을 끝내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만족스러웠던 후반기 첫 등판이지만 '밸런스'가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정교한 제구가 빠르게 이닝을 지워간 윤영철은 6회까지 투구수가 8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6회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윤영철은 "5회에 이어 6회 볼넷을 줬다.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변화구를 많이 써서 잘 넘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이순민 AT 마드리전 결승골 팀K리그 3-2 승리

래퍼 'wero'(위로)가 특별한 영감을 얻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결승골이 신곡에 영감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FC의 미드필더 이순민은 그라운드 밖에서는 래퍼로 활약하고 있다. 위로라는 예명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돼 트로피를 품에 안았고, 래퍼로도 시상식 단상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잊지 못할 2022년을 보냈던 그는 1부리그로 복귀한 올 시즌에도 특별한 추억을 더했다.

이순민은 코칭스태프가 선정한 '픽 일레븐'에 선정되면서 팀K리그 소속으로 지난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틀레티코와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서 나섰다.

전반 12분 양투안 그리에즈만의 슈팅이 골키퍼 이창근(대전)을 맞고 나갔고, 토마 르마르의 왼발 발리슛이 나오면서 아틀레티코가 선취점을 가져갔다. 후반 5분 프리킥 상황에서 세징야(대구)가 올려준 공을 안톤(대전)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팀K리그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0분 아틀레티코 카를로스 마르틴의 오른발 슈팅이 팀K리그 골대를 가르면서 1-2.

하지만 후반 44분 제르소(인천)가 산티아고 모리노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팔로세비치가(서울)가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페널티킥에 성공했다. 그리고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울스 타전 무대를 누빈 이순민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2-2로 맞선 후반 시간 제르소가 넘겨준 공을 받은 이순민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이 골로 경기는 팀K리그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이순민은 경기가 끝난 뒤 "행복을 원하는 건 모든 선수의 얘기다. 원한다면 가지면 돼. 항상 내 옆에 있지. 중요한 건 만족을 못하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자신의 곡 제브라의 가사를 읊으면서 특별한 결승골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광주 이정효 감독은 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TV로 경기를 봤는데, 정말 많이 부러웠다. 멋있었고 감동 받았다. 광주 선수들이 좋은 기회를 받아서 광주를 널리 알리고 빛나보였다"고 이순민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